



미디어가 표방하는 고령화 사회의 바람직한 노인상

환영받는 시민으로 노년을 보낼 사명*

김은준 대전보건대학교 인문교양학부 조교수**

본 연구는 ‘우리사회가 고령화 시대의 노인을 어떤 존재로 재형성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 아래, 고령화 시대 미디어의 노인 담론을 분석한다. 노인이라는 특정 집단에 대한 담론 형성은 인간이 시대의 요구에 따라 담론의 대상으로 어떻게 다뤄지고 어떠한 주체로 만들어져 가는지에 관한 보편적 사안에 대한 부분적 해답을 제공해준다. 푸코의 통치성 개념에 근거하여 진행된 다수의 기존 연구들에서 인식하고 있듯이,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인간은 이전보다 더욱 개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노인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정부 정책, 미디어 보도,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생산되고 있는 노인담론은 공통적으로 이 시대의 노인이 환영받고 인정받는 삶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변함없이 사회경제적 주체로서의 기능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노인의 독립성은 멋진 인생을 위한 미덕으로 강조되며, 주관적 젊음은 노인들에게 경제적 생산성을 보유한 존재가 될 것을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덧입는다. 또한 주변을 보듬으며 자기 삶을 성숙한 자세로 받아들이는 어른으로서의 역할은 젊은 세대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조건으로 다루어진다. 이러한 담론은 국가와 사회의 돌봄 책무를 상대적으로 축소시키게 되며, 현실의 많은 노인들을 이상적 담론의 중심으로부터 밀어냄으로써 지속적으로 그들을 주변화된 타자로 고착시킬 수 있다.

핵심어: 고령화사회, 노인주체, 노인담론, 미디어, 통치성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4 S1A5A8018391).

** eunjune@hit.ac.kr

1. 서론

흔히 노인은 사회의 중심에서 멀어진 대상으로서 신체적으로 노쇠하고 연약한 부양의 대상으로 여겨지곤 했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늘고 신체적 조건이 향상됨에 따라 그러한 관념은 변화되고 있다. 노인 인식 변화의 실질적 배경은 한국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에 있다. 통계청(2016)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65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2%를 차지하는데, 이는 2005년보다 약 220만 4천 명 증가한 수치다. 이같은 추세라면 우리나라는 2020년에는 노인 인구비 15.7%로 고령사회(aged society), 2030년에는 24.3%로 초고령사회(hyper aged society), 2040년에는 32.3%로 노인중심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15).¹⁾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은 우리사회가 노인이라는 대상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 통계적 예측치만 가지고 계산하더라도 향후 5년 이내에 우리는 유소년의 수보다 더 많은 노인들을 부양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집단으로 인식되면서 미리 준비되고 관리되어야 할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다뤄진다.

사회구성원으로서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적극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은 텔레비전에서도 잘 드러난다. 텔레비전은 현대사회의 가장 강력한 매체로, 텔레비전을 통해 제시되는 것은 인간의 선택과 문화적 결정과 사회적 요구들의 결과물(Fiske & Hartley, 2003)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최근 노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그 활약이 두드러지는 프로그램들은 흥미롭다. 그들은 청년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배낭여행을 떠나거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자신들의 삶을 여전히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재현되기도 하며, 뉴스에서는 노인들이 가진 경제력을 강조하거나 활력있는 노년을 보내기 위한 다양한 기준들을 제시하기도 한다. 물론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노인의 모습이 현실의 고유한 반영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의 사회화 과정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미디어가 노인에 대한 상을 제시하면서 기존에는 찾아보기 쉽지 않던 변화된 모습들을 조망하고 있다는 점은 유의미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미디어 자체가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기도 하거니와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재현의 양상들이 사회적 담론의 차원으로 생산되고 유통되면서 일정한 삶의 방식을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1) 통상적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가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김현주, 2016).

무엇보다 자기계발이 오늘날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주요 동력임을 생각할 때, 전통적으로 경제성을 상실하고 주변부로 밀려난 대상으로 여겨져 왔던 노인들은 젊은 세대들에 비해 더 변화가 많은 삶의 양식들을 경험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들은 한국사회가 겪어온 격정적 변화만큼이나 개인적 삶의 차원에서도 다양한 정체성을 경험해왔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현실 속에서, 노인이라는 대상은 자기계발의 합리성이 팽배한 시대적 배경만큼이나 전 생애에 걸쳐 여러 가지의 사회적 요구 속에 놓이는 존재가 된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는 문화연구적 측면에서 한 가지 유의미한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된다. 그것은 바로 ‘우리사회가 고령화 사회를 겪으면서 이 시대의 노인을 어떤 존재로 재형성하고 있는가?’ 이다. 이들은 노쇠한 육체를 입고 주변부로 밀려난 존재로서 과거에 고착된 타자로 다뤄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고령화 사회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담론의 중심을 차지하는 주체로 적극적으로 인식된다. 인간이 담론을 위한 지식의 대상으로 고려되며, 지식 속에서 권력이 작동하고 또한 권력이 그 작동을 위해 지식의 형태를 요구한다는 푸코(Foucault, 2003/2014)적 견지를 유지할 때, ‘이 시대에 노인을 둘러싼 특정한 담론과 지식의 생산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결국 고령화 사회의 노인 주체 형성이라는 본질적 문제의식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오늘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노인이라는 구성원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요구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통치측면에서 보았을 때 경제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존재 양식과 그 전략들, 그리고 그것을 추동하는 이데올로기를 파악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노인 담론 생성의 조건을 확인하고, 사회문화적 수준에서 담론의 생산과 유포를 담당하는 대표 기구인 미디어의 노인 담론 특성을 파악하며 이들 담론이 이 시대의 노인 주체를 어떻게 재형성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노년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들

1) 사회노년학적 접근

최근 한국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위기론과 더불어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이슈가 다양한 영역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노년에 대한 담론은 보다 넓은 수준에서 먼저 이해될 필요가 있는데, 노년과 사회를 잇는 문화적 담론은 사회노년학 관점에서 비롯되어 왔

다. 제2차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생성되어 온 사회노년학은 크게 1980년대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는 양상을 보인다.

사회노년학 이론의 갈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박선권(2012)에 따르면 사회노년학 연구들은 먼저 1970년대까지 다섯 가지 지류로 구분된다. 노년의 행복을 사회적 역할 수행과 직접 연결지어 노년기의 적절한 행동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온 활동이론, 노화의 개념을 성년의 역할에서 물러나는 것이라 규정하였던 일탈이론, 노인 간 상호작용 증대가 일종의 집합의식으로 이어진다는 하위문화이론, 노화를 연령에 의한 사회분화로 바라본 연령계층론, 노화로 인한 상호작용의 감소를 노인의 권력자원 저하에 따른 교환관계의 결과로 본 교환이론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연구들은 노화와 사회의 관계에 대해 경험적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1980년대 이후 노화를 사회적 구성의 산물로 바라본 연구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사회구성주의, 정치경제학적 접근, 누적적 이익불이익 이론, 연속이론, 지구화이론 등이다. 이 지류들은 노화와 노인은 객관적으로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사회적으로 정의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기저에 두면서 노인 내부의 이질성과 불평등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인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노인문제에 대한 근대적 규정(이탈이론, 활동이론)이 연속이론의 분야에서 여전히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노년을 문화인류학적 접근방법으로 다룬 정진웅(2012, 2014)은 이상의 연구 지류들을 다시 유리이론(일탈이론), 활동이론, 하위문화이론, 지속이론, 사회적 교환이론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이러한 여러 시각들이 개인주의적 문화 편향을 보이면서 나이 들의 경험이 나 대응을 다룸에 저마다의 특정한 문화적 가정들을 상대적으로 드러낸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한국사회의 노년에 대한 이해가 연령주의에 지배받고 있으며 미디어가 간주하는 노년 역시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부정적 타자에 주로 머문다는 점을 지적한다. 학계 역시 노년의 문제와 적용 내지 만족도에 집중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이러한 점들은 타자화되어 있는 노년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복제하고 강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²⁾ 이에 그는 고령화 한국사회에서는 추후 반연령주의적 문화 실천으로서의 노년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노년의 구체적인 맥락에 작동하는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구조적

2) 2000년대 초반 10년간 한국의 사회노년학 논문 256편을 분석한 연구(최은영, 김정석, 2012)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고령화위기와 더불어 성공적 노화 담론이 한국사회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경우 노년을 '사회문제'로 다루고 있으며, 인구학적 연령규정에 의해 노년을 접근하고 있었고(160건) 노인을 의존적 존재나 사회적 부담으로 전제한 논문(102건)도 적지 않았다.

힘들이 어떻게 노년의 위치성을 구성하고 노년의 경험을 채색하는지를 살피는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2) 성공적 노화 담론

노년에 대한 사회적 수준의 담론이 사회노년학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면,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 수준에서 최근 한국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된 것으로 성공적 노화 담론을 들 수 있다.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한국의 고령화는 노인문제에 대한 선제적 조치의 차원으로 성공적 노화 담론을 유포하게 하였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성공적 노화 담론은 활동이론에서 출발하여 서구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는데, 특히 발달심리학 분야에서 노년기 발달과업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1990년대까지 발달심리학에서 논의되어 온 성공적 노화의 개념은 첫째, 질병과 무능력에서 벗어나고 둘째,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셋째,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영위되는 것으로 정리된다(Rowe & Kahn, 1997). 그러나 2000년대 들면서 이 외에 긍정적인 영성(positive spirituality)의 개념이 더해진다(Crowther, Parker, Achenbaum, Larimore, & Koening, 2002; 장휘숙, 2007 재인용). 즉 개인의 차원에서 보다 정교해진 삶의 수용과 계발이 첨가된다 할 수 있는데, 이는 노인의 삶을 높은 만족의 상태로 지속되어야 할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자기통치의 구체적 전략이라 볼 수 있다.

성공적 노화는 2000년대 들어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는 성공적 노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명료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이며 관련 연구 역시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지 못했다. 일례로 2000년대 이후 성공적 노화에 대한 논문 86편을 분석한 연구(조명희, 2014)에 따르면 해당 연구의 동향은 대체로 성공적 노화를 규명하고자 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1993년부터 2010년까지 서구와 한국에서 이루어진 성공적 노화에 관한 논문 79편을 분석한 연구(안정신·정영숙·정여진·서수균·Cooney, T.M., 2011)는 성공적 노화 연구의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기존 연구들 간 성공적 노화 개념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여 구성요소와 영향요인들이 혼용되고 있으며 둘째, 개념의 합의 부재로 인해 측정 도구에 따라 성공적 노화 달성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등 노인 계층 내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외 연구간 문화적 차이가 발생하는 등 성공적 노화 개념에 관한 문화적 접근과 한국 문화 속에서 '잘 나이 들기'에 대한 새로운 의미개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상적으로 성공적 노화라는 언표는 나이 들어도 몸이 건강하고 활력 있으며,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는 등의 표상을 상상케 하며 일정한 모델 내지는 객관적 수준을 형성하게 하는데, 이러한 것이 과연 현실의 수준과 경험적 논리가 충분히 뒤따르는 결과인가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최희경(2010)은 이러한 답론이 노인의 욕구와 이해를 반영하지 않는 사회공학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경제적 생산성의 의미에 집중되어 있고, 사회권으로서의 노인복지 급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며, 다양한 노인을 배제하는 문화적 규범적 편협성의 문제를 가진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연구(정경희·한정혜·김정석·임정기, 2006)에서도 성공적 노화가 갖는 규범성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많은 노인들을 주변화한다면서, 특히 우리나라의 성공적 노화 모델은 개인의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사회구조적 측면을 간과한다고 지적한다.

결국 이러한 논의들은 한국사회를 고유한 맥락으로 한 성공적 노화에 대한 고찰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년기에 대한 문화는 미국 중심의 학제적 영향을 받아 고려되어 왔고, 유교문화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의 변화,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등 우리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충분히 감안한 논의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노년 주체를 해석하는 현실적인 프레임을 파악하는 것은 미디어를 생략하고서는 불가능하다.

3) 미디어의 노인 재현

미디어 학계에서 그간 노인 재현 문제를 다룬 연구는 크게 광고와 드라마 분야로 구분된다. 이들 연구는 노인에 대한 스테레오타입화된 인식들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파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효과들을 유추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들은 노인이라는 대상이 특정 매체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적 분석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광고 속 노인의 재현을 분석한 연구들(김선영, 2009; 양정혜, 2011)의 경우 노인은 건강에 문제가 있고 부양될 존재로 그려지거나 수동적이고 보살핌이 필요한 대상으로 묘사됨을 보여주면서, 우리사회가 급격한 속도로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인의 모습은 제한된 영역에서, 수동적이며 연약한 보살핌의 대상으로 재현되는 양상에 머물러 있음을 알게 한다. 드라마나 영화 같이 서사구조를 바탕으로 한 텍스트 분석들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노인 인물들은 기존의 대중매체가 재현했던 관습, 즉 전통적 가족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한 희생적 인물이면서 가부장적 성역할에 충실한 캐릭터로 재현되던 방식에 머물러 있으며(이경숙, 2012), 텔레비전 드라마의

경우 현실에 비해 대가족과 독거노인 가구의 비중이 많이 나타나면서 남성노인이 가족 내 권력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노인을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중심적 수호자로 제시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박주연·김숙, 2013). 다큐멘터리에서 나타난 노인의 시간성을 분석한 연구(신정아, 2016)에서는 보다 현실적으로 정형화된 재현 관습이 발견된다. 2000년대 이전 여행다큐에 재현된 노인의 삶은 대체로 자식을 위해 희생한 부모, 남은 생을 견디며 살아가는 외로운 삶, 소외된 시골에 남겨진 잉여 세대로 그려진다. TV에서 재현되는 삶은 언제나 육체적 늙음과 말년의 시간에 맞춰져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화가 만들어낸 미디어 프레임에 다름 아니다. 노인의 이미지가 이들 미디어에서 정형화된 틀 속에서 전통적 관습을 유지한 채 재현되고 있다는 점은 수용자들에게 비판의 지점을 제공하기도 한다. 실제로 20대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노인여성의 미디어 재현과 차별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수행한 연구(강진숙, 2012)에서는 미디어의 부정적인 노인여성 재현과 차별문제에 대하여 다수의 응답자들이 노인여성의 탈성화 작업에 의한 무성적 존재 경향을 비판하면서 노인여성에 대한 콘텐츠 부족과 캐릭터의 빈곤함, 표현법과 같은 점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광고나 드라마는 아니지만 신문에 제시되는 노인담론을 분석한 연구들도 눈길을 끈다. 김미혜(2003)는 인터넷 신문에서 표현되는 노인 이미지를 분석하였는데, 전체 기사 중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담은 것은 93.5%에 달한 반면 긍정적 이미지를 담고 있는 기사는 그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인터넷 신문이 현재의 노인의 이미지만을 전달하는 것에 치중하여 미래의 노인들에 대한 바람직한 이미지를 제시하는 것에는 소홀하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경혜와 윤성은(2007)은 신문들이 신노년층 노인들의 모습을,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자립성을 유지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으로 그리면서 이들을 고령화 시대에 바람직한 삶의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현실적으로 많은 노인들을 소외시킬 우려가 있고, 신노년의 라이프스타일이 실제 노인들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적 여건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 신노년층 문화 형성의 주체는 결국 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신노년이라는 주제 자체의 정향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결국 신문의 노인담론은 현실적인 문제를 충실히 다루지 못한 채 사회문화적 맥락과 동떨어진 선도적 담론들로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령 인구가 갈수록 늘고 이에 따라 노인들의 삶의 모습이 다양해지며 이들에게 주어지는 기대치 또한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의 모습들을 현실적으로 보

여주는 장르들에서는 과연 노인들이 어떤 식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런 의미에서 리얼리티 장르에 대한 근래의 분석들에 주목하게 된다. 최근 몇 년 사이 케이블 채널인 tvN에서 방송된 <꽃보다 할배>는 리얼리티 장르를 통해 노인담론의 변화되는 양상을 대표적으로 확인시켜주면서 관련 연구들을 생산했다. 대표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노인의 성장이라는 테제를 다루면서 노년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풍부한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상식을 보여주었음을 발견한 연구(한혜경, 2015), 출연자와 제작진의 경계를 허물고 시청자와 동일시를 통한 인터랙티브 서사를 추구하면서 특히 자기성찰의 서사를 통해 공감과 소통의 휴머니티를 추구했다는 의의를 발견한 연구(김명석, 2016)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양선희(2015)의 연구는 해당 프로그램이 가진 리얼리티 장르적 특성과 더불어 차별점도 주목하면서 시니어 예능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고 있다. 그는 <꽃보다 할배>가 노인을 일방적인 보호의 대상이나 의존적 존재로 그리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현실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특히 우리사회에서 노인의 정체성을 재설정하면서 시니어 예능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젊은이가 아닌 노인의 배낭여행이라는 주제 비틀기를 통해 세대 간 거리감을 좁히고 경험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창출했다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들은 최근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감지되는 노년을 새롭게 바라보려는 동향과 맥을 같이한다. 그동안 광고나 드라마 등에서 정형화된 노인의 이미지가 반복되어 제시되어 왔다면, 리얼리티 장르를 중심으로 노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대체로 노인이 젊은 세대와 동떨어진 세대가 아니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볼 줄 아는 독립성을 지닌 존재이고, 나이 들과 관계없이 성장과 성찰을 지속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미디어 내의 재현 양상을 넘어 미디어가 세상에 대한 일정한 태도나 가치를 설정하고(Gerbner, Gross, Morgan, & Signorielli, 1986), 특정 양상의 주체상을 보여주고 일련의 사회적 질서와 윤리를 전달함으로써 자기통치의 주요한 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한 분석의 지점들을 제공한다. 따라서 선행 연구들이 발견해 낸 학술적 성과들을 바탕으로 하면서 보다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실제적 재현에 따른 담론 양상을 파악하고, 그것이 도덕, 사상, 제도 등 비담론적 장치들과 맞물려 형성해 나가는 이 시대의 노인 주체상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겠다.

3. 연구방법 및 분석대상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우리사회가 고령화라는 배경 속에서 노인을 어떤 존재로 재형성하고 있는가를 담론과 주체 구성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푸코의 담론과 주체형성에 관한 논의와 통치성(Governmentality) 개념을 이론적 기반으로 삼는다. 푸코의 통치성 개념은 권력이 개인을 억압함으로써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가진 필요와 능력을 알게 하고 그것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개인이 자유의지를 통해 스스로를 통제하고 지배한다는 것으로(Foucault, 1991, 2001/2007), 최근 한국사회의 자기계발문화를 해석하는 데 효과적인 이론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권력이 개인을 대상으로 작동할 때 자유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테크놀로지가 수반된다는 전제(Foucault, 1983/1989, 2001/2007)는, 고령화 시대에 경제성있는 존재로 살아갈 것을 요구받는 노인들에게 가해지는 자기통치전략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하는 근거가 된다.

통치성 논의에 기대어 구체적으로는 담론분석을 수행한다. 권력이 수행하는 지배의 다양한 실천행위들은 개인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상화함으로써 주체로 만들어내는데, 권력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지배대상은 다양한 지식이나 언어 생산을 통해 일정한 담론으로 구성된다(Foucault, 1975/2003). 이에 푸코는 담론 분석의 의의를 담론의 내부에 국한하지 않고 담론 외부의 요소들, 그리고 그것들이 맺는 일련의 질서를 찾는 데 두었다. 이러한 견지를 따르자면 담론분석은 일련의 담론이 무엇에 의해, 어떠한 다른 요인들과 관계 맺으면서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가를 봄으로써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담론분석에서는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특정 담론의 내부적 속성을 파악하면서도, 담론의 생산과 실천이 사회문화적으로 어떠한 효과로 이어지는가를 폭넓은 관점에서 일관되게 유추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 역시 노년 담론을 미디어 간, 그리고 미디어 외부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분석, 정리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는 국가 정책, 신문, 텔레비전에서 생산 및 유포되는 텍스트를 분석하여 이를 사회문화적 담론의 수준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각 텍스트가 다뤄지는 공간, 진행 배경, 소재, 전경화된 가치와 배경화된 질서 등을 파악해 가면서 이러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어떠한 이데올로기가 기저에서 작동하는지를 살피고 노인을 새로운 주체로 형성하는 담론의 효과를 함께 논하려 한다.

2)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노인 담론 생산의 기본 조건으로 기능하는 정부 정책 담론이다. 고령화 사회라는 시대적 배경과 자기계발이라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기본 맥락에 둔다면, 노인 담론의 생산 조건이 되는 정부 정책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책 담론은 2010년 이후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연도나 분기에 따라 자료가 갱신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본 연구에 직접 관련성이 있으면서 가장 최신에 발간된 자료 총 4건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정하였다. 해당 자료들은 노인 담론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확인하게 하는 주요 자료로, 미디어의 노인 담론이 기능하는 토대를 살피게 한다는 점에서 분석의 의의가 있다.

둘째, 신문 담론이다. 노인이라는 주체를 권능화된 대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지만 그중 선행되는 것은 늙은 신체의 주인이던 노인을 새로운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관련 지식을 생산하여 유포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먼저 뉴스매체를 들 수 있다. 뉴스매체는 일련의 담론이 사회의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생산되고 그것이 대중 차원에서 소비, 유통되는 과정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을 반영하고, 조직하며, 재생산하는 권력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뉴스매체를 조선일보에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텔레비전 뉴스에 비하여 신문이 정보를 심도 깊게 다뤄낼 수 있는 데다가 조선일보의 경우 2013년 이후 ‘신(新)중년 6075’ 기획기사로 대변되는 새로운 노인담론을 기획하여 다루었기 때문이다. 같은 시기 국내 신문들의 경우 고령화 사회의 노인의 역할에 대한 뉴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조선일보처럼 기획기사 형식으로 장기간 보도한 경우는 없었다. 이에 더하여 조선일보의 경우 종이신문 중 배포수가 가장 많다는 점에서 미디어 영향력을 어느 정도 담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조선일보 ‘신중년 6075’ 기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3부작으로 등장한다. ‘신중년’이라는 단어는 본래 40~50대 중년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6075’ 세대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하면서 노인 연령 기준이 낮아지는 세대를 대변하면서 전통적인 노년의 개념을 변화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분석기사는 조선일보 홈페이지에서 추출하였다.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을 기간으로 두고 ‘신중년’을 검색어로 입력하였을 때 총 1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지만 분석과 관련 없는 기사를 제외하고 총 103건의 기사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노인이 주제로 등장하는 대중문화 콘텐츠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하나는 텔레비전 리얼리티 프로그램이고, 다른 하나는 텔레비전 드라마다. 먼저 리얼

리티 프로그램은 가공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야기의 흐름, 대본을 탈피하고 관찰 카메라에 의존하는 제작 방식, 그리고 이러한 사실적 이야기들을 사후 인터뷰와 편집을 통해 재맥락화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통해 어떠한 장르보다 현실적이고 의도적인 방식으로 담론의 유포 통로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연유로 최근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자기통치 정치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김수정, 2010; 이희은, 2011; McMurria, 2008; Ouellette & Hay, 2008 등). 특히 한국의 리얼리티는 서구와 달리 스타의 친근하고 진솔한 모습에 수용자가 동일시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분석되는데(이희승, 2011), 이러한 특성상 시청자들이 자신과 출연자를 동일화하면서 롤모델로 삼는 가능성(Hoffner & Canter, 1991: 조준상·은혜정, 2013 재인용)은 그만큼 크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 구체적인 분석 대상으로 할배들의 황혼 배낭여행이라는 콘셉트로 화제를 모으며 인기를 끌었던 tvN의 <꽃보다 할배>(이하 <꽃할배>)로 정하였다. <꽃할배>는 평균 연령 77세(2015년 기준)의 노인 배우 4명이 젊은 후배 배우와 함께 해외를 여행하면서 벌어지는 다양한 에피소드가 흥미를 유발했지만, 본 연구가 주목한 이유는 그 속에서 노인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의가 발생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인 배우들은 젊은이의 전유물로 여겨져 온 배낭여행의 주인공이 되어 비좁고 불편한 숙소, 기대 이하의 음식, 높고 쉽게 피곤해지는 육체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통해 자신들 내부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인생을 반추하며 젊은 세대에게 인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사실성에 기반한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 시대 노인의 바람직한 모습을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데 일조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이어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은 텔레비전 드라마다. 리얼리티 장르의 경우 현실성을 강조하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서사가 부족한 단점을 지닌다. 이런 탓에 여러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에서는 자막이나 캐릭터 부여와 같은 방식을 통해 부족한 서사의 공백을 메우는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김명석, 2016). 물론 이러한 캐릭터는 대체 가능하며 상호교환성을 갖고 있는데, 시청자와의 관계에서 보자면 밀접한 개입과 투자를 독려하는 동일시 전략으로 지배적으로 활용된다(김예란·박주연, 2006). 하지만 몰입과 동일시는 완결된 서사의 형식을 갖춘 장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따라서 텔레비전 텍스트의 또 다른 한 축으로서 노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드라마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드라마 안에서 그려지는 갈등과 해소전략, 서사전략 등을 살펴보면서 리얼리티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6년 방영된 tvN <디어 마이 프렌즈>(이하 디마프) 총 16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노인을 주체로 한 경우가 매우 적은 대중문화 콘텐츠

표 1. 분석대상

구분	분석대상
정부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보건복지부 노후설계강화 주요정책 • 2015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자료(노후생활) • 2015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 2016년 고용노동부<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도자료(2016. 12. 27자)
신문 기사	조선일보 <신중년 6075> 기획기사 총 103건(2013년 9월~2015년 12월)
텔레비전-리얼리티	tvN <꽃보다 할배> • 유럽편 총 7부(2013), 대만편 총 7부(2013), 스페인편 총 8부(2014), 그리스편 총 7부(2015)
텔레비전-드라마	tvN <디어 마이 프렌즈>(2016) 총 16부

들 속에서, 해당 프로그램은 다양한 모습의 노인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노인의 삶에 대하여 세대 간 이해와 어우러짐을 꾀하고자 제작되어 53회 백상예술대상 TV드라마작품상과 극본상을 수상했다. <디마프>에서는 8명의 노인과 1명의 젊은이가 주인공을 이루는데, 젊은 주인공 박완(고현정 분)의 목소리로 매회 8명의 노인을 바라보면서 느끼고 이해하는 내레이션이 등장해 시청자들에게 일정한 해석의 방향을 제공한다. 그리고 그 방향은 프로그램 홈페이지에도 제시되어 있듯이 ‘노인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관찰과 정보의 부재에서 온 것이라 결론짓고 노인이 아닌 어른의 이야기를 다룸으로써 청춘과 어른이 친구가 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동시대 노인의 모습이 어떻게 재현되는가와 더불어 이들을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하는가를 함께 고려케 한다는 장점을 지닌다고 판단했다.

분석 대상들은 담론의 생성 조건과 실제 생산된 미디어 담론의 차원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노인 담론 생성 조건으로는 정부 정책을 먼저 정리하게 될 것이며, 그다음으로 신문 담론을 다루고자 한다. 그 이유는 기능적 측면에서 텔레비전보다 신문이 담론 생성 조건에서 제시되는 언표들을 더 직접적으로 다루면서 관련 담론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큰 틀에서 정부 정책과 신문 담론을 담론의 생성 조건 및 1차 생산 영역이라고 본다면, 텔레비전 리얼리티 장르와 드라마 장르는 정부 정책과 직접적 관련성은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사회문화적 수준에서 더욱 일상화된 형식의 담론을 생산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텔레비전 담론은 보다 종합적 수준에서 논의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노년기에 요구되는 환영받는 존재상이 어떠한 특성으로 요약되는지, 그리고 그 담론들은 직접적 노년 세대와 더불어 잠재적 노년 세대인 젊은 층에게는 어떤 자세를 요구하는지, 이러한 노년 담

문들이 고령화 사회의 현실의 수준과 어떻게 조응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4. 활력 있는 장년으로 재개념화된 담론의 조건

1) 정부의 민간 부담 프레임과 노인 범위 재설정

현재 한국의 인구학적 지형은 저출산고령화라는 표현으로 압축된다. <2016년 고령자통계>(통계청, 2016)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2%로, 고령화 사회를 지나 고령사회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는 노인 부양에 대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예상하게 한다. 2015년 기준 노년부양비³⁾는 18.1명으로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5.5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나온다. 유소년인구(0세~14세) 100명 당 65세 이상 인구를 뜻하는 노령화 지수는 2015년 95.1로, 10년 전인 2005년 48.6의 두 배에 달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직접적인 경제 부담으로 이어지는데, 향후 저출산상황이 지속되고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노인부양에 따르는 국가적 비용은 막대할 것으로 전망된다.⁴⁾

이에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노인 정책을 수립, 진행 중이다. <2015년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자료>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요 정책이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큰 목적하에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첫째, 활기찬 노년을 위해 노인 건강을 지원하고, 치매예방 지원을 강화하며 독거노인 돌봄을 확대한다는 것, 둘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보장하며,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 셋째,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체계를 개편한다는 것과, 노인들의 의미있는 사회활동(예를 들어 지역사회 봉사, 재능기부 등)을 확대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한 <2010년 보건복지부 노후설계강화 주요

3)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100명 당 65세 이상 인구

4) 같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건강보험상 65세 이상 고령자 진료비는 21조 3,615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6.8%를 차지하는데 이는 전년 대비 2조 64억 증가한 수치다. 또한 고령자 1인당 진료비는 3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민 1인당 진료비 115만 원보다 3배 많은 수치다. 전년 자료인 2015년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2014년 건강보험상 65세 이상 고령자 진료비는 19조 3,551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5.5%를 차지했다(통계청, 2015, 2016).

정책)에서 제시된 계획의 세부적 실천이라 볼 수 있다. 해당 자료에서는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 강화’라는 제목 아래 노후설계 기반 조성,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및 활성화와 같은 세부적인 업무 추진 계획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고령층이 스스로 제3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등 설계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표준화를 추진하겠다’는 대목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이해된다. 하나는 정부 차원에서 노인들의 복지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인 스스로 자신의 삶을 기획하고 주체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사전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생애주기형 자기개발 프로그래밍을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방식으로 계획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데 보건복지부가 주관을 하되, 지방-공공-민간 등 노후설계기관 간 상호 보완적 협력체를 구성하여 노후설계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방법론이 설계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노후설계교육은 재무, 경력관리, 건강, 여가, 생활 등으로 구분되어 각 영역의 프로그램을 표준화하겠다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으며, 노후설계서비스는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직장교육의 교양과목으로 편성케 한다든지 노후설계서비스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기구를 민간차원에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 명시되어 있다.

노인의 소득보장과 일자리창출 위주의 정책에서 개인 내지 민간협력에 기반한 생애주기 자기개발 실천들이 설계되어 있다는 것은 노인에 대한 국가차원의 시선이 주로 경제학적 차원에서 형성되어 있고 노인이 개별화된 대상으로 논의된다는 점을 알게 한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율이 OECD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김현주, 2016) 현실적인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는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과 더불어 일자리창출이 우선 논의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노후설계정책의 방법론에서 정부의 역할이 지원에 집중된 채, 비용분담과 수탁운영의 주체가 민간영역이 될 것이라는 점은, 결국 정부의 노후설계가 다양하고 표준화된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명분으로 공공 차원에서 소요될 수 있는 각종 사회적 비용을 민간과 개인 주체가 부담케 하는 프레임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한다.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정부 정책 중 가장 현실적 변화는 고령자 명칭 변화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서는 고령사회 대응 패러다임 전환의 구체적인 방향으로 국민·주택연금 확대 등 노후대비 강화와 더불어, 생산인구 확충과 실버경제와 같은 구조적 대응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노인빈곤율을 2014년 기준 49.6%에서 2020년 39%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다. 이는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의 선제적 조치로 정부는 2016년 12월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령자의 명칭을 ‘장년’으로 일괄 변경한다는 것인데, 현재 50~55세 연령을 준고령자로,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한 법적 기준에서 55세 이상을 모두 ‘장년’으로 통칭해⁵⁾ 연령차별 없는 일터 조성의 첫걸음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명칭 개정 작업은 표면적으로는 노인들에게 차별없는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으나, 실상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노동시장의 핵심 인력을 노인의 범주까지 넓히는 작업을 통해 노인의 노동지속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의 생산가능성을 담보하려는 시도를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고령자 연령을 상향 조정한 것이 아니라 고령자의 개념 자체를 장년의 범주 속에 편입, 용해시킨다는 것은 노인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돌봄 의무를 정당화된 방식으로 축소하려는 장치에 다름 아니다. 축소된 공적 돌봄의 자리는 노인 개개인에게 마치 권리처럼 주어지는 노동의 의무가 대체하고, 일하지 않거나 혹은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노인은 자기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장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노후에 대한 민간 부담 프레임 구축과 노인을 장년으로 재개념화하는 정책 등은 오늘날 노인 범위의 재설정과 같은 현실적 변화를 이끄는 기본 조건으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노인 담론의 생산을 추동한다. 이러한 변화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미디어 담론으로 조선일보의 신중년 담론을 들 수 있다.

2) 권능화된 노인, 신중년

조선일보의 ‘신중년 6075’ 분석 기사는 2013년 62건, 2014년 3건, 2015년 38건으로 모두 103건이다. 기사의 본문을 주제별로 분류한 결과 8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구체적인 주제 구분과 해당 기사 건수는 다음 표와 같다. 참고로, ‘기타(복합)’의 경우 지배적인 카테고리라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여러 부류의 이야기들이 비슷한 비중으로 다뤄지는 경우, 그리고 취재후기나 독자기고문 등을 분류한 것이다.

2013년 9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게재된 ‘신중년 6075 1부’에서는 신중년의 출현을 알림과 동시에 6075세대의 시대적 특성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들이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를 위해 평생 근로를 해야 하는 세대라는 점과 실제로 65세

5) 고령자 명칭의 변화는 비단 우리나라의 상황만이 아니다. 2017년 1월 일본 노년학회·노년학회회는 고령자 기준을 만 7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제안을 공식화했는데, 이는 신체능력, 지적능력, 의식조사 등 일 본인의 심신 건강 상태에 관한 다양한 조사를 검토한 결과라 하겠다. 해당 학회에서는 65~74세를 ‘준고령자’로, 90세 이상을 ‘초고령자’로 분류할 것을 제안했다(이정현, 2017, 1, 6)

표 2. 조선일보 신중년 기사 주제 구분

구분	건수
용어설명 (신중년 개념정의 포함)	5
신체 (성 포함)	6
인간관계 (부부, 연애, 친구 등)	12
라이프스타일 (문화, 유행 등)	22
고용 (일자리, 청년상생)	32
경제 (경제력, 소비력)	12
정치 (정치적 영향력)	3
정책	4
기타 (복합)	7
계	103

이후에도 변함없이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기사에서는 이들이 과거 전통적 노인의 개념과 대비해 매우 젊은 라이프스타일을 구가하는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들은 스마트폰 사용에 적극적이며 청바지를 입고 영화관 가기를 즐겨하고 연륜이라는 스펙에 봉사정신까지 충만한 노동 가능 세대로 재현된다. 젊고, 일하고 싶고, 활기찬 세대인 이들은 실버시장의 소비계층이기도 하고 250조가 넘는 예금을 갖고 있는 큰 손이기도 하다.

2013년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한 달간 게재된 ‘신중년 6075 2부’ 기사들에서도 같은 특성들이 나타난다. 6075세대가 신체적 능력이나 지적 역량으로 볼 때 과거 중년과 같은 경쟁력을 가졌다는 점이 집중 부각된다. 이들은 은퇴세대로 언급되지 않으며 ‘제2 전성기’를 구가하는 젊은 노년으로 강조되는데 개발도상국에서 강사로 활약하는 이도 있고, 영세 상인들에게 자신의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기도 하며 새로운 인생을 힘차게 유지하는 사례들이 제시된다. 2부 기획기사가 1부 기사들과 갖는 차이가 있다면, 6075세대가 노동 가능한 인력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다뤄지면서 이들이 가진 경제적 효용가치가 집중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들의 노동가능성은 청년 일자리를 위협하는 요소가 아니며 오히려 청년세대와 상생하면서 사회 전체의 수익성과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 동력으로 다뤄진다. 또한 전체 인구의 12%가량(611만 명)되는 신중년은 전체 총 소비의 18%(122조 5천억 원)를 차지하며, 자녀가 아닌 자신의 건강과 품위를 위해 적지 않은 소비

규모를 갖추고 있는 파워 컨슈머이기도 한데, 이들은 과거 건강식품과 의료기기 위주의 소비패턴에서 벗어나 여가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즐기는 변화된 소비의 주체로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 신중년은 보수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유권자 집단으로, 여야 모두 이들을 무시할 수 없는 중요 정치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분석도 등장한다.

반면 2015년 2월 3일부터 2월 24일까지 총 14건으로 구성된 ‘신중년 6075 3부’에서는 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과거에 비해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에 초점을 맞춘다.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부부 중심의 삶을 위해 필요한 지침들,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후 새로운 사랑을 만나는 이들의 이야기, 일과 자식에 빼앗긴 삶을 되찾으려 여행과 봉사로 일상을 채우는 사례들, 건강과 재력의 중요성, 외모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즐기는 인생을 선택하며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는 이들의 이야기가 다양하게 제시된다. 3부 기획기사에서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대안들이 소개되면서 노인의 육체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양을 꾸미고 건강한 몸을 위한 운동을 비롯해 노년의 사랑과 성에 대한 이야기도 현실적으로 다뤄진다.

조선일보의 신중년 담론은 늙은 신체의 주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노인을 새로운 대상으로 규정해 내면서 노인을 지칭하고, 재현하고, 해석하는 체계를 리뉴얼하려 한다. 신중년 담론에서 다루지는 6075세대는 더 이상 ‘뒷방 늙은이’가 아니다. 노쇠한 육체나 노동력 상실의 세대, 빈곤의 대상,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정적 존재는 사라지고 완전히 상반된 새로운 개념의 노인이 전면에 등장한다. 이들은 경제적 효용성을 잃지 않는 집단으로 수용되면서 나이가 들어도 노동과 소비를 담당할 수 있는 주체다. 이들은 ‘성공한 삶의 주인공’, ‘사랑받는 부모 세대’로서 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와 관리로 여전히 늙지 않은 육체를 유지하며, 젊은이와 상생하며 일자리를 유지하고, 은퇴 후에도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경제적 파워를 과시한다. 결국 노인이라는 주체는 ‘중년’의 인표를 차용하면서 권능화되어 있는 대상으로 활발하게 생성된다.

5. 텔레비전이 유포하는 노년 담론들

1) 독립성이라는 최고의 미덕

정부정책과 신문에서 활력 있는 장년으로 재개념화된 노인 담론이 적극적으로 생성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보다 대중화된 차원에서 노인담론을 생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쉽게 전

달하는 대표적인 채널은 텔레비전이다. 텔레비전 리얼리티 장르와 드라마를 통해 수용자에게 유포되는 노인 담론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은 노인의 독립성이 큰 미덕으로 다뤄진다는 점이다. 독립성은 경제적, 신체적, 관계적 독립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경제적 독립성

〈꽃할배〉와 〈디마프〉의 주인공들 공히 경제적 독립성을 가졌는데, 이는 노인의 삶을 당당하게 하면서 젊은 세대에게 대우받을 수 있는 기본 자격으로 연결된다. 〈꽃할배〉 4인방은 연기의 거장들로 성공을 거둔 전문가인데 이들은 경제적으로 자유롭다. 비록 제작진이 정해놓은 여행 경비를 사용해야 하는 룰이 있지만, 자유시간을 가질 때만큼은 스태프들에게 음식과 술을 선뜻 사주면서 선배로서 후배를 다독인다.⁶⁾ 이들이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 찍은 셀프카메라에는 그들의 주거 공간이 담겨 있는데 할배들은 잘 꾸며진 공간의 소유자로 여유 있는 경제적 배경을 보여준다. 드라마 〈디마프〉의 경우도 노인 주인공들은 저마다 궁색하지 않은 경제력을 갖고 있다. 과부지만 번듯한 양육집의 소유자 조희자(김혜자 분), 대박 짬뽕집 사장 장난희(고두심 분), 화려한 부자 여배우 이영원(박원숙 분), 카페 주인이자 미술품 수집가 겸 예술가의 후원자 오충남(윤여정 분), 전직 변호사 이성재(주현 분). 그리고 지독한 구두쇠 영감인 김석균(신구 분)과 그런 남편 곁에서 용돈을 타 쓰며 살아온 문정아(나문희 분) 부부 역시 숨겨둔 부동산이 적지 않다. 최고령자인 오쌍분(김영옥 분)의 경우도 아픈 남편과 장애인 아들을 데리고 살지만 경제적 기둥인 딸(장난희)가 있으며, 모두의 어머니로 그려지면서 필요한 도움을 쉽게 받는 상황이다.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렇듯 텔레비전에서 노인의 경제적 독립성이 강조된다는 점은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제1의 원칙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대변해준다. 유소년 인구를 노인 인구가 앞질러 가는 상황과, 길어진 수명, 가족체제의 변화, 고용유연화, 국가연금에 대한 불안, 경제 저성장 등 이미 전개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사회가 가장 확실하게 맞대응하는 것은 노인 개개인이 스스로의 경제적 독립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6) 스페인편에서 백일섭은 자유여행 시간에 헤밍웨이가 단골이었다는 술집을 찾아간다. 그는 자신을 위해 와인 한 잔을 시키고 제작진들에게도 술을 사주며 웃는 얼굴로 “이건 내가 사는 거야. 제작비가 적어서 내 돈으로 사는 거라고”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그런 후 그의 앞에 앉아 있는 젊은 스태프들과 대화를 주도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만족한다.

(2) 신체적 독립성

경제적 독립성 다음으로 강조되는 것은 신체적 독립성이다. 신체적 독립성은 두 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하나는 보행의 자유이며 다른 하나는 자발적 건강관리다. 이 중 보행의 자유는 의존하지 않는 삶을 의미하면서 경제적 독립성 못지않게 노인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미덕이자 이상적 상태로 제시된다.

커다란 캐리어에 배낭을 짊어 메고 여행하는 〈꽃할배〉에서 출연자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원칙은 ‘걷기’다. 할배들은 걷고 또 걸으면서 숙소를 찾고 숨겨진 명소를 구경한다. 할배들에게 부여된 캐릭터를 보더라도 보행력은 중요한 가치다. 일행 중 최고령자이지만 늘 적극적으로 여행을 리드하고 앞서 걷는 이순재에게는 ‘직진순재’라는 캐릭터가 붙지만, 그들 중 나이가 제일 어림에도 관절염을 앓고 있는 백일섭에게는 ‘섭섭이’, ‘투덜이’와 같은 부정적 캐릭터가 부여된다. 그는 오르막이 이어지자 택시를 타자고 투덜거리고, “똥개 훈련시키냐”면서 역정을 낸다. 배낭여행이라는 전경 속에서 잘 걸어다닐 수 있는 능력은 여행을 수월하게 만들거나 반대로 일행을 기다리게 하고 긴장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제시되는데,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노인이 지속해 나가야 할 삶의 여정을 질적으로 결정짓는 것은 보행의 자유라는 메시지가 드러나게 된다. 〈디마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갑자기 몸이 아파 입원한 오충남(윤여정 분)에게 가장 먼저 달려와 보호자가 되어 준 존재는, 그녀가 오랫동안 후원한 젊은 예술가도, 친자매처럼 지내던 다른 주인공들도 아닌, 4륜 스쿠터를 몰 줄 알았던 최고령자 오쌍분(김영옥 분)이었다. 또한 평생 시댁식구 봉양에 구두쇠 남편을 수발하며 살아온 문정아(나문희 분)가 지긋지긋한 가부장적 현실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늙은 나이에 취득한 운전면허 덕분이었다. 결국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늙어 있는 나, 그리고 나의 친구뿐이며 이러한 현실은 노인의 독립적 삶이라는 이상적 상태로 미화된다.

더불어 텔레비전 속 노인들은 자발적 건강관리에 능하다. 배낭여행 중인 〈꽃할배〉의 노배우들은 매일 약 챙겨먹기를 잊지 않는다. 짐을 꾸리면서도 가장 먼저 약을 챙기고, 여행을 앞두고는 평소보다 운동량을 늘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디마프〉에서 치매를 앓는 주최자는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된 후 자식과 그 누구에게도 짐이 되기 싫다며 요양병원을 알아본다. 이들은 노년의 건강문제를 어쩔 수 없음의 상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관리하거나 대응하는 것으로 보여주는데, 그 이유를 자식이나 타인에게 폐를 주지 않아야 함에 두면서 현실의 노년이 건강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를 학습시킨다.

(3) 관계적 독립성

노년의 독립성은 인간관계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지는데, 이는 노년 중심의 유사 가족 공동체의 모습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꽃할배> 4인방은 나이가 들어도 깊은 우정을 나누는 훌륭한 대인관계를 보여준다. 4인의 역할과 협력 관계는 여행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는데, 이서진 없이도 서로 협력하여 숙소를 찾아가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멤버들을 챙기기도 하고, 오랜 세월 쌓아온 깊은 우정을 카메라 앞에서 고백하기도 한다. <디마프>의 경우는 보다 직접적이다. 이른바 ‘꼰대’로 설명되는 늙은 주인공들은 각자의 일상에 놓여 있다가도 결정적 사건들, 예를 들어 친구의 딸이 가정 폭력의 피해자 임이 밝혀졌거나, 친구가 치매에 걸렸음을 알았거나, 친구 어머니의 임종을 길에서 함께하거나, 혈연은 아니지만 조카라 부르는 박완(고현정 분)의 사랑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는 등의 문제 앞에서는 강한 결속력을 발휘하여 갈등을 해결한다. 마지막 회에서 이들이 한 의자에 앉아 서로 어깨를 기대고 함께 석양을 바라볼 때 젊은 박완이 몇 걸음 뒤에서 그들과 떨어져 서 있는 장면은 노년이 이루어야 할 관계적 독립성이 어떠한 양상이어야 하는지를 대변한다. 늙은 주인공들은 박완을 자신들의 삶에서 상당히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지만, 박완은 ‘꼰대’들의 삶에 개입을 거부하다가, 관찰하게 되고, 마침내 이해하는 대상이지, 노년의 삶 안으로 들어가거나 그들을 자신의 젊음으로 끌어안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늙은 주인공들이 그들 스스로의 연대를 강화하여 전통적 가족의 개념을 대체하는 공동체 역할을 서로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여행이라는 상황을 가정하든, 드라마를 통해 그려지든 간에 젊은 세대의 삶에 개입하지 않고 부담도 주지 않으면서 그들과는 독립된, 노년끼리의 잘 사는 삶이 ‘멋진 인생’ 내지는 ‘행복한 노후’의 가치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독립성은 노년의 삶이 스스로의 힘이 아니고서는 긍정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운 현실을 방증한다. 경제적, 신체적, 관계적 독립성이 담고 있는 가치는, 자신을 지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며 자녀와 주변인들, 나아가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개인의 영역이 노인의 삶에 오롯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2) 주관적 젊음이 갖는 사회적 가치

늙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유명한 광고카피처럼 누구나 젊음을 꿈꾸며 살기를 원한다. 자신의 신체 연령과 상관없이 스스로 인식하는 연령을 주관적 연령이라 하는데(Montepere & Lachman, 1989), 주관적 연령이 낮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고 주관적 건강 역시 좋게 나타나는 반면, 죽음에 대한 공포는 낮게 나타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장휘숙, 2010). 따라서 노인이 주관적으로 자신을 젊게 생각하는 것은 노년의 정신 건강과 사회 참여 등을 고려할 때, 노인을 인적자본으로 계속 사용해야 하는 고령화 사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텔레비전에서 유포되는 노년 담론에서도 주관적 연령 개념에서 비롯된 젊음의 가치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는 리얼리티 장르인 <꽃할배>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노인은 여전히 쓸 만한 존재라는 것, 자신의 분야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 때 주관적 젊음이 더 가능하다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노인은 여전히 쓸 만한 존재

<꽃할배> 초반에는 노인 주인공들이 자신들의 나이 늙을 드러내면서 젊은이들에 비해 적어진 기회를 아쉬워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면, 시즌이 거듭될수록 점점 여행 자체를 즐기고 다시 떠나기를 바라며 ‘젊어진 생각과 행동’을 선택하는 모습으로 진화한다. 첫 방송 당시 홀로 배낭여행 중인 젊은 여성을 보면서 존경스럽고 부럽다고 말하던 이들은, 점차 ‘다음 여행이 기대된다’, ‘끝까지 함께하자’는 말로 미래를 기획한다. 또한 떠날 당시에는 꿈도 꾸지 못했을 외국에서의 자유시간을 홀로 즐기면서, 오래 걷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낯선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건다.⁷⁾

이러한 할배들의 변화는 이들이 연예인으로서 리얼리티 장르에 맞게 자신을 녹여낸다는 직업적 프로의식을 말해주면서 동시에 ‘노인’으로서 이들이 여전히 시청자에게 소비될만한 가치를 충분히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젊은 배우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리얼리티 장르가 평균 77세의 베테랑 노년 배우들의 주 무대로 변화하면서 ‘노인’은 주인공으로서 여전히 활약 중이라는 것을 흥미롭게 증명하는 것이다. 이는 출연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직접 드러난다. 그리스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박근형은 “그 왜, 아직 버림받지 않았다는 확인 같은 거 있죠? 쓸모없다고 취급당하지 않았다는 그런 확인 같은 것. 그러니까 더 용기백배하죠”라며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서 쓸 만한 존재임을 기쁘게 여긴다. 또 유럽 편에서 백일섭

7) 스페인편 7회에서는 할배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자유 시간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일례로 신구는 며칠 전 본 플라멩코 공연의 감동을 생각하면서 혼자 마드리드 광장으로 나가 음반을 산다. 물어 물어 음반 가게를 찾아낸 신구는 자신이 고른 시디를 들고 ‘셀프인증샷’까지 찍으며 그 순간을 즐긴다. 또한 이순재는 택시를 타고 유창한 스페인어로 스페인광장에 가자고 말한다. 그가 광장에 도착해 돈키호테 상 앞에서 사진을 찍는 장면과 79세의 나이로 최고령 돈키호테를 연기하던 무대 위 모습이 교차편집되면서 여전히 무대를 꿈꾸는 젊은 배우 이순재가 부각된다.

은 “나는 신아홉에 나이를 묶었어요. 칠순이라 생각하면 막 끄찍해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신아홉만큼만 그냥 그대로 즐겁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요. 이런 기운으로 앞으로 10년, 15년 더 살 수 있었으면. 그게 꿈이에요”라는 말로 주관적 젊음을 강조하기도 한다. 제작진 역시 의식적으로 이들을 젊은 존재로 각인시킨다.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보고 나오는 할배들이 소감을 이야기할 때 BGM으로 ‘위 아 영(We are young)’이 등장하는 것은 이들이 여전히 젊고 활동적인 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세대임을 보여주는 계산된 배치다.

(2) 노동을 통해 스스로를 책임지는 젊은 노인

주관적인 젊음을 누리는 이들에게는 나이가 큰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수행한다. 여행 중간 중간에도 대본을 손에서 놓지 않고, 모두 잠든 비행기 안에서는 좌석 램프를 켜 채 지도와 일정표를 계속 확인한다. 이순재는 감기몸살로 몸이 힘든 상황에서도 “앉아 있으려면 뭐 하러 와. 돌아다니려고 온 건데. 한 군데라도 더 봐야 할 거 아니야”라며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한다. 이러한 모습들은 결국 노인들이 권위를 앞세워 좌정해 있는 존재가 아닌, 젊은 마인드로 필드를 왕성히 누비는 노인이 될 때 스스로에게 인정받고 타인에게도 환영받는 존재가 됨을 알려준다. 사회적으로 생산성있는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자식이나 사회에 의지하지 말고 계속 일하고 공부하면서, 내 앞에 놓여 있는 노동을 통해 스스로를 책임지는 노인이 되라는 주문이 곳곳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디마프>의 담론도 마찬가지다. <디마프> 3회에서 영정사진을 찍으러 온 박완의 할머니 오쌍분은 “지금은 골로 가는 것 보다 발일이 더 걱정”이라며 내일의 죽음보다 오늘의 할 일을 걱정한다. 함께 영정사진을 찍으러 온 다른 주인공들 역시 죽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정사진을 찍으면서도 각자 캐릭터에 맞는 유쾌하고 멋진 모습의 포즈를 취하면서 다만 그 순간을 즐기는 장면을 만들어낸다.⁸⁾

나이든 출연자들이 여전히 쓸 만한 존재로 다뤄지고, 젊게 살아가는 자세로 자기 앞의 노동에 충실하며 현재를 즐기는 모습으로 부각되는 것은 노년의 경제성을 제고하게 만드는 지점으로 작용한다. 노인은 이제 사회의 주축에서 주변부로 배제되거나 타자화된 존재로 다뤄지지 않는다. 환영받는 노인은 경제성을 갖춘 소모적이지 않은 인간으로서 계속

8) 물론 <디마프>가 노인의 삶을 늘 긍정적으로만 그려낸 것은 아니다. 다만 본 연구의 초점이 드라마 분석이 아닌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년담론의 생산과 유포라는 점에서, 담론의 특성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장면들을 선택적으로 제시하는 것임을 밝힌다.

공부하고 일하는 어엿한 ‘활용가치’를 보유한 존재다. 자녀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국가의 도움을 크게 받지 않아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즉 노인들은 복지의 대상에서 경제적 생산의 한 축으로의 기능 변화를 노골적으로 요구받는 것이다.

자기 앞의 노동에 충실하고 현재를 즐기는 이러한 요소들은 분명 주관적 젊음을 누리야 하는 노년의 이상적 모습을 제시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이상적 모습은 현실에 대한 역설로 해석되기도 한다. 즉 노년의 삶이 풍요롭기 위해 주관적 젊음을 누리고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노년이 마주하고 있는 죽음이라는 테제에 대해 탈각된 감정과 시선이 동시에 존재한다. 하지만 개인의 종말에 대해 무겁게 고민하는 대신, 그것을 유쾌하게 다루는 서사를 통해 죽음과 노년이라는 병렬된 소재는 그 순간만큼은 ‘다만 우리와 거리가 먼’ 대상으로 다뤄지고 마는 것이다. 이는 결국 드라마를 통해 생산되는 노인 담론이 젊게 사는 이상적 노인상을 유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노인의 직면한 주제들에 대한 관심을 상대적으로 결여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내포한다. 그 주제들은 죽음일 수도, 가난일 수도, 질병일 수도 있다.

3) 노인 말고 어른이 될 것

텔레비전이 유포하는 노년 담론의 세 번째 축은 노인 말고 어른이 되라는 것이다. 어른으로서 주변을 따뜻하게 보듬고, 자기 삶을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여주며, 그런 모습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을 때 노인은 필요한 대상이 될 수 있다.

(1) 주변을 보듬는 어른

〈꽃할배〉 속 할배들은 평생 연기라는 한 우물을 판 거장들로, 성공한 노년의 표상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이들은 연기자로서뿐 아니라 아버지나 선배로서 주변을 보듬는 모습을 통해서도 사랑받는 노인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여행 중인 노배우(박근형)는 기념품 가게에서 아내 선물을 고민하며 고르고, 호날두 기념티를 구입해 진짜 아들과 아들 배역을 맡은 후배에게 하나씩 줄 계획을 세운다. 스태프가 ‘왜 본인 것은 사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남자는 자기 먼저 선뜻 살 수가 없어요. 나는 많이 봤으니까. (같이 못 온 부인에게) 미안해요”라고 말한다. 선물을 구입한 후 숙소로 돌아가는 그에게는 ‘모든 것을 끝내고 발걸음이 가벼워진 근형. 돌아서자 일 걱정이 앞서지만 멋지게 해내고픈 설렘도 큼니다’라는 자막이 추가된다. 뿐만 아니라 할배들은 이서진이 요리로 끄꿨을 때 테이블 세팅을 대신하고, 서툰 요리 솜씨를 타박하지 않고 “이 정도면 괜찮지”라며 준비한 자의 마음을 편하게 만

든다. 젊은 후배가 짐 옮기는 것을 거들기도 하며, 예산을 타협하지 않으려는 감독에 맞서 적극적으로 나서 후배를 변호하기도 한다. 그리고 때마다 배우로서 어떻게 이력을 쌓아야 하는지에 대해 격려의 말도 아끼지 않는다. 이서진 역시 할배들을 정성으로 보필한다. 이들은 서로가 여행 내내 각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고 돕는 협력관계로 구축되어 있다.

후배를 보듬는 할배들은 그만큼 깎듯한 대접과 보살핌을 받는다. 이서진은 매회 가이드, 짐꾼, 요리사 역할까지 담당하면서 스태프들에게는 짜증을 낼지언정 한 번도 할배들을 걱정시키지 않는다. 게스트로 출연한 가수 씨니는 특유의 애교로 할배들을 웃게 만들고, 톱스타 최지우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일어나 채비를 마치고 할배들 모실 준비를 서두른다. 젊은 후배들의 이런 모습은 제작진 차원의 다양한 후반 장치들(음악, 자막, 편집방식 등)과 결합하면서 더 극적으로 할배들을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일면 거부장적 체제하의 전통적 효 관념이 재생산되는 대목으로도 볼 수 있는 이런 리얼리티적 장치들은 존경받을만한, 대접받을만한 노인의 조건을 모범적으로 제시하면서, 일종의 바람직한 상태 즉 윤리의 차원으로 기능하는 지점을 마련한다. 그리고 자막의 서사나 화면 밖 이야기를 활용하여 어른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해시킨다. 일례로, 프랑스 편에서는 출연자들의 젊은 시절 흑백사진과 현재 여행 중인 할배들의 모습을 교차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들이 남긴 것은 무궁무진하지만 결코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못다 이룬 것 맘껏 펼쳐보라 말합니다. 마치 우리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이며 미래입니다’라는 자막이 등장한다. 프레임 안에 등장하는 스태프들 역시 할배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늘 한 걸음 뒤에서 할배들의 걸을 지키는 모습이다. 배낭여행 중인 노년배우들은 프레임 안에서 성공한 배우, 존경받을만한 선배이지만 이들을 통해 제작진들이 시청자들에게 2차적으로 생산해 전달하는 의미는 ‘어른으로서의 노인이며 그런 노인을 공경하는 젊은이’라는 관계다.

(2) 다음 세대를 이끄는 성숙한 존재

젊은 후배의 공경을 받는 할배들은 시청자에게도 어른으로서의 메시지를 성실하게 전달한다. 프랑스 에펠탑을 바라보면서 친구는 화면 밖 젊은이들에게 “에펠탑처럼 당시에는 인정을 못 받더라도 새롭고 가치있는 것을 시도해보면 훗날 크고 명예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한다. 더불어 두바이에서 이순재는 “자기의 목표와 의지로 역량을 발휘하고 개발하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며 인생 선배로서의 가르침을 전달한다. 또한 그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소회를 묻자,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결론을 이야기하면 죽

음이 가까워졌다는 얘기라고. ‘내 인생은 만족하고 완벽하게 행복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러나, 큰 짐을 남기고 가는 건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정도가 되면 건강하게 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라며 자기 삶을 바라보는 성숙한 어른의 자세를 보여준다.

〈디마프〉의 경우 젊은 박완이 ‘꼰대’들을 이해하기 전까지 그들은 ‘알아서 잘 살아주었으면’ 하는 단지 나이 든 존재에 불과했다. 그러나 차츰 그들을 이해하게 됨에 따라 그들은 ‘꼰대’에서 어른으로 다가와 마침내 ‘친구’가 된다. 박완은 죽음의 순리를 받아들이는 어른들을 거대한 존재로 바라보기도 하고, 그들의 인생을 함부로 말했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기도 한다. 젊은 자신에 비해 사랑에 대한 판단이 성숙한 늙은 이모들을 부러워하고, 노년의 우정과 삶의 방식에 경의를 표하게도 된다. 이런 시선을 보완하는 차원으로 노인 스스로 젊은 세대에게 자신이 어른임을 확인시키는 대목이 등장하기도 한다. 12회에서 오충남은 본인을 이용하고 따돌리는 젊은 후배들에게 ‘나를 왕따시킨 건 아주 작은 죄겠지만, 자기 가치를 스스로 모른다는 것은 너희들이 저지른 죄 중 가장 큰 죄일 것’이라 일침한다. 젊은 후배들에게 이용당해 온 돈 많은 꼰대에서, 젊은 후배들의 보이지 않는 가치를 일찍이 인정하고 보듬어 왔던 어른으로 젊은 후배들을 각성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어른들은 결핍을 안고 있는 젊은 세대를 보듬는 존재다. 박완은 유년시절 자신을 데리고 자살을 기도했던 엄마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고, 사랑하는 연인이 프리포즈 중 눈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를 잃은 아픔의 소유자다. 그러나 이러한 결핍과 상처는 직접적으로는 엄마와의 화해를 통해, 간접적으로는 다수의 어른들이 보여주는 성숙한 인생을 관찰하며 치유된다. 나이 들과 죽음을 선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다양한 노인 캐릭터를 통해 제시하고 그것을 젊은 세대의 시각으로 이해시키면서, 중국에는 어른의 역할이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전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꽃할배〉에서 노인을 공경하고 대우하며, 이들을 책임지는 역할을 젊은 세대에게 부여했던 과정은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는 노인을 바라보는 자들을 위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존경받고 바람직한 노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더하여 ‘효’라는 전통적 윤리를 재생산하는 과정을 통해 젊은 세대가 결국은 국가나 사회가 담당할 수 없는 부양의 의무를 여전히 짊어지고 있음을, 그리고 그러한 의무는 자발적 존경에서 비롯되어야 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연유로 〈디마프〉 역시 젊은 딸의 시선으로 부모세대를 다시 바라보는 것인지 모른다. 분명한 것은 이런 양상들이 프레임 밖에 존재하는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의 질서가 어떠한지 하는지를 드러내는 통치적 지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예상되는 문제 중에는 적은 인구의 젊은 세대가 많은 인구의 노년층을 부양

해야 하는 문제를 비롯해 한정된 일자리에 대한 세대 간 갈등도 예상된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이해와 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는데, 따라서 세대의 관계는 노인과 젊은이 대신 어른과 젊은이의 관계로 구축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다. 그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열린 마음과 물질적 기반, 체력적 조건 등이 다져져야 한다. 그리고 이는 분명 젊은이보다는 노인들에게 더 높은 강도의 변화와 계발을 요구한다. 그들은 건국 이래 가장 오래 살고 있는 첫 세대로서 개인이 경험하는 삶의 변화가 누구보다 많고 급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6. 결론

고령화 시대의 노인은 늙어 있는 주변적 존재가 아니라 다만 나이가 많은 존재로 인식되면서 ‘장년’, ‘신중년’ 같은 언표로 지칭된다. 은퇴라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 실버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의 규모, 일할 수 있는 능력, 성적 주체로서의 육체와 같은 요소들이 부각되면서 그간 ‘노인’으로 지칭되었던 많은 이들은 이제 ‘새로운 중년’ 세대로 재규정된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역할을 지속해야 하는 경제적 대상으로 인정받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의 책무들은 대폭 축소되며 대신 노인 개개인의 활력, 노동력, 자기돌봄의 책임이 강화된다. 노인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효용가치를 지속적으로 발휘하거나 또는 새롭게 하는 대상으로 합리화되고 있다. 팔순이 넘은 나이에도 연기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는 모습, 젊은 가이드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짐을 나르고 유창한 외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 자신이 변함없이 대중에게 소비되는 것을 기뻐하고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따뜻한 격려를 보내는 일까지 노인들은 전문성, 지식, 소득, 건강 등의 면에서 두루 높은 수준을 구가할 수 있을 때 환영받는 존재로 인정받게 된다.

무엇보다 의존적이고 나약한 노인의 모습은 지속적으로 배제되면서 상대적으로 스스로의 삶을 알아서 지탱할 줄 아는 독립성이 큰 미덕으로 다뤄진다. 경제적인 여유와 신체적인 독립성을 갖고 있으면서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여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고독하지 않은 생활을 영위하는 것, 자신의 경력과 지식을 다음 세대에 나누어 줌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것, 그러면서도 자기 삶을 성찰하고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어야 하는 어른으로서의 임무까지, 노인은 개인의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 문제없이 지속하면서 후세의 걱정거리보다는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사명을 부여받는다.

이처럼 노인을 새로운 지식의 대상으로 고안해 내는 것 즉 노인을 생산적 주체로, 경제적 주체로, 자립적 주체로, 성찰적 주체로 재규정해 나가는 양상은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노인들에 대한 주변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 노인에 대한 긍정적이고 활력을 추구하는 담론 이면에는 적절한 복지혜택이나 사회적 돌봄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노인들의 현실이 존재한다. 문제는 노인을 생산적 시민으로 규정하고 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들이 담론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면서 현실의 노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주변화되고 개별화된 사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담론의 중심에서 밀려난 노인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차별적 존재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

후지타 다카노리(藤田孝典, 2015/2016)는 일본의 노인 문제를 다룬 저서에서 지금은 노인끼리 살 수 없는 서바이벌 시대임을 주장한다. 그는 수입이 없고, 충분한 저축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노인들을 ‘하류 노인’이라 지칭하면서 질병과 사고, 황혼 이혼, 자녀의 미취업, 세계적인 저성장 등의 문제로 인해 누구나 하류노인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가난 자기 책임론과 개인에 의존하는 정부를 비판하면서 하류 노인을 막기 위한 국가와 사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이러한 우려는 성공적 노화의 주창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애브람슨(Abramson, 2015/2016)은 미국의 사회계층화의 핵심 메커니즘이 노년의 일상생활을 불평등하게 구조화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를 건강 격차, 구조적 불평등, 문화, 사회적 연결성 등의 측면에서 면밀하게 비판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전체 노인의 절반이 이미 빈곤층이다.

무엇이 노인을 형성하는가? 산업화의 역군, 끈대, 뒷방 늙은이, 독거노인 등 노인을 말해왔던 많은 언표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익숙하다. 그것은 이러한 언표들이 그간 현실을 반영하는 용어로 기능하면서 익숙함을 주는 이유도 있겠지만 나름의 역사성을 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인 노인 재개념화가 수행되면서 나타나는 신중년, 꽃할배 등의 새로운 노인상은 평균이 아닌 ‘모델’을 제시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밝게 조망하는 듯하나, 그만큼 드리우는 그림자 역시 짙을지 모른다. 물론 <꽃할배>와 <디마프>는 한류라는 이름에 가려져 왔던 노배우들의 진가를 당당히 발휘하게 하면서 ‘노인’이라는 대상을 나약하고 부정적인 타자로부터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주체의 영역으로 끌어냈다. 그간 미디어에서 재현되어 온 노인들이 대개 수동적이고 보살핌이 필요하며, 희생적이고, 사회 주축에서 배제되어 남은 생을 외롭게 살아가는 잉여집단으로 다뤄졌다면, <꽃할배>와 <디마프> 속 노인들은 당당한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했고, 노인이 배제된 현실을 냉소적으로 비틀기도 하면서 우리들 머릿속의 노인상을 기존의 이데올로기와는 다른 새로운 것

으로 상당부분 대체하였다. 따라서 두 텍스트는 그간 평가절하되어 왔던 혹은 충분히 이해 받지 못했던 노인의 삶을 보다 가까이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문화적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신중년이 자신의 삶을 여전한 활력과 경제력으로 적극 책임지는 존재라면, 그리고 배낭을 짊어진 할배들과 ‘친애하는 나의 친구들’로 지칭되는 드라마 속 노인들이 경제적, 신체적, 관계적 독립성을 갖고 현실과 맞닥뜨려가며 어른으로서 사랑과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들로 그려진다면, 이러한 캐릭터들의 태생적 기반인 ‘현실’의 노인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존재라는 것은 역으로, 현실에서 겪는 빈곤과 배제 역시도 개인의 책임이라는 논리로 이어진다. 그것은 현실의 수준에서는 이상과 모순된 양극단의 노인들, 이를테면 꽃할배만큼이나 흙할배들의 존재를 더욱 분명히 목도케 하거나, 노인끼리의 의사 가족 공동체 같은 또 다른 양식의 공동체 신화에 의존하든지, 아니면 이대로 과대이상화되어 현실적 책임을 개인에게 무자비하게 전가하면서 신자유주의의 건재함을 과시할지도 모른다.

참고 문헌

- 강진숙 (2012). 노인여성의 미디어재현과 차별에 대한 인식 연구: 20대 대학생들과의 초점집단인터뷰를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24권 1호, 111-138.
- 김명석 (2016). 꽃보다 서사, 리얼리티 예능의 여행 읽기: tvN <꽃보다 할배>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2권 3호, 215-246.
- 김미혜 (2003). 인터넷 신문에 나타난 노인 이미지 분석: 오마이뉴스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3권 1호, 13-30.
- 김수정 (2010). 글로벌 리얼리티 게임쇼에 나타난 자기통치의 문화정치: <프로젝트 런웨이>와 <도전! 슈퍼모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4권 6호, 7-44.
- 김예란 · 박주연 (2006). TV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제작자 심층 인터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0권 3호, 7-48.
- 김현주 (2016). 고령화시대 노인정책의 방향. <보건복지포럼>, 239호, 2-4.
- 박선권 (2012). 사회노년학 이론의 갈래, 추세, 정책적 함의.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2호, 73-101.
- 박주연 · 김숙 (2013).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노인의 가족 내 역할과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7권 2호, 185-206.
- 신정아 (2016). 여행다큐멘터리에 나타난 노인의 시간성 연구: KBS <영상포엠 내 마음의 여행>을 중심으로. <동서언론>, 18호, 1-17.
- 안정신 · 정영숙 · 정여진 · 서수균 · Cooney, T. M. (2011). 성공적 노화 연구의 비판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권 3호, 35-54.
- 양선희 (2015). 리얼 버라이어티 쇼의 진화: <꽃보다 할배>로 본 시니어 예능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방송학보>, 29권 4호, 322-356.
- 이정현 (2017, 1, 6). 日노년학회 “고령자 기준 만 75세 상향 조정해야”. <중앙일보>. URL: <http://news.joins.com/article/21089082?cloc=rss|news|global>
- 이희승 (2011). 지상과 리얼 버라이어티의 한국 지역적 특징과 수용의 쾌락. <언론과학연구>, 11권 3호, 207-237.
- 이희은 (2011). 텔레비전 버라이어티쇼의 사적인 이야기 서술. <언론과 사회>, 10권 2호, 2-48.
- 장휘숙 (2007). 성공적 노화에 이르는 길: 성공적 노화의 개념과 전략.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엄 자료집>, 15-30.
- 장휘숙 (2010). 주관적 연령이 노인의 자기존중감과 주관적 건강, 죽음공포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권 4호, 1-15.
- 정경희 · 한경혜 · 김정석 · 임정기 (2006). <노인문화의 현황과 정책적 함의: '성공적 노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진웅 (2012). <노년의 문화인류학>. 서울: 한울.

- 정진웅 (2014). 반연령주의적 문화 실천으로서의 노년 연구: 고령화시대의 노년 연구에 관한 제언. <보건사회연구>, 34권 3호, 452-476.
- 조명희 (2014).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동향. <한국생활과학지>, 23권 2호, 231-249.
- 조준상 · 은혜정 (2013).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연구: 의사사회 상호작용 요인, 플로우 그리고 시청 만족도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3권 3호, 556-590.
- 최은영 · 김정석 (2012). 최근 사회노년학의 연구 동향: 한국노년학회지 게재논문의 '노인' 개념과 주제 분석. <사회과학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9권 1호, 165-185.
- 통계청 (2015). <2015 고령자통계>. URL: http://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48565
- 통계청 (2016). <2016 고령자통계>. URL: http://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bSeq=&aSeq=356426&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2016+%EA%B3%A0%EB%A0%B9%EC%9E%90
- 한경혜 · 윤성은 (2007). 대중매체에서의 신노년 담론 분석: 신문매체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7권 2호, 299-322.
- 한혜경 (2015, 4월). <노인도 성장한다: 꽃보다 할배가 보여준 상식>. 한국방송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영상연구 분과. 부산: 동명대학교.
- 藤田孝典 (2015). <下流老人: 一億総老後崩壊の衝撃>. 홍성민 (역) (2016). <2020 하류노인이 온다>. 서울: 청림출판.
- Abramson, C. M. (2015). *The end game: How inequality shapes our final years*. 박우정 (역) (2016). <불평등이 노년의 삶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서울: 에코리브르.
- Crowther, M. R., Parker, M. W., Achenbaum, W. A., Larimore, W. L., & Koenig, H. G. (2002). Rowe and Kahn's model of successful aging revisited: Positive spirituality – The forgotten factor. *The Gerontologist*, 42(5), 613-620.
- Fiske, J., & Hartley, J. (2003). *Reading televis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Foucault, M. (1975). *Surveiller et punir*. 오생근 (역) (2003).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서울: 나남.
- Foucault, M. (1983). The subject and the power. In L. Dreyfus & P. Rabinow (Eds.), *Michel Foucault, beyond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 서우석 (역) (1989). 주체와 권력. <미셀 푸코: 구조주의와 해석학을 넘어서> (297-319쪽). 서울: 나남.
- Foucault, M. (1991). Governmentality. In G. Burchell, C. Gordon, & P. Miller (Eds.),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with two lectures by and an interview with Michel Foucault*. Hemel Hempstead: Harvester Wheatsheaf.
- Foucault, M. (2001). *L'herméneutique du sujet: Cours au Collège de France 1981~1982*. 심세광 (역) (2007). <주체의 해석학>. 서울: 동문선.
- Foucault, M. (2003). *Le pouvoir psychiatrique: Cours au Collège de France, 1973~1974*. 오토르망

- (역) (2014). <정신의학의 권력: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3~74년>. 서울: 난장.
- Gerbner, G., Gross, L., Morgan, M., & Signorielli, N. (1986). Living with television: The dynamics of the cultivation process. In J. Bryant & D. Zillman (Eds.), *Perspectives on media effects* (pp. 17-40). New Jersey, NJ: Lawrence Erlbaum.
- Hoffner, C., & Cantor, J. (1991). Perceiving and responding to mass media characters. In J. Bryant & D. Zillman (Eds.), *Responding to the screen: Reception and reaction process* (pp. 63-101). Hillsdale, NJ: Erlbaum.
- McMurria, J. (2008). Desperate citizens and good samaritans: Neoliberalism and makeover reality TV. *Television & New Media*, 9(4), 305-332.
- Montepare, J. M., & Lachman, M. E. (1989). You're only as old as feel: Self-preception of age, fears of aging, and life satisfaction from adolescence to old age. *Psychology and Aging*, 4(1), 73-78.
- Ouellette, L., & Hay, J. (2008). *Better living through reality TV*. Cambridge, MA: Blackwell.
- Rowe, J. W., & Kahn, R. L. (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4), 433-440.

최초 투고일 2017년 2월 10일

게재 확정일 2017년 5월 15일

논문 수정일 2017년 5월 30일

Abstract

How Media Makes the Elderly into Welcoming Citizens in the Aged Society

Eunjune Kim

Associate Professor,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edia senior discourses in the aged society which is based on the idea that 'what is our society reforming for the senior in the aged society?'. The formation of senior discourses is ultimately based on how the human being is treated as an object of discourse according to the demands of the times and how it is formed as a subject of discourses. As recognized in many previous studies based on concept of Foucault's governmentality, in the era of neo-liberalism, human beings are struggling to increase individual values more than ever before, The elderly are no exception. The senior discourses produced in government policies, media coverage, and TV programs are common to the elderly of this age and act as a hero of a welcome and recognized life. And that it will continue to function as economic subjects. The independence of the elderly is emphasized by virtue for a wonderful life, and subjective youth is overlaid with social values that require it to be an entity with socio-economic productivity. In addition, the role of a senior who takes care of the surrounding people and accepts life maturely becomes a condition for receiving love and respect for the younger generation. These discourses relatively reduce the caring accountability of the state and society and push many real elderly people from the core of ideal discourses to consistently fix them as decentralized objects.

Keywords: aged society, senior subjects, senior discourses, media representation, governmentality